

10-4-2026 주일 설교 메시지

금주의 묵상: 시편 91:1-16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3:7-13

말씀제목: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

“필라델피아”는 “형제의 사랑”을 뜻하는 두 헬라어 낱말에서 유래합니다. 이것은 1500 년에서 1900 년까지의 교회 기간을 대표하는 이름입니다. 이 시기는 교회에 관한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간인데 그 이유는 이 교회가 참된 그리스도의 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는 일곱 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회개하라는 말을 듣지 않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던 길을 가는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열린 문을 가진 교회였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1611 년에 권위역본(Authorize version) 킹제임스 성경을 펴낸 교회입니다. 영어로 된 이 성경은 1500-1900 년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평가를 받은 유일한 교회입니다.

그 당시 자칭 유대인이라고 주장했던 자들은 하나님께서는 실제의 유대인들과 완전히 단절되었다고 주장했으며 자기들이 이스라엘의 참 계승자라고 주장했으며 이들은 실제로는

로마인들이면서 자기들이 이스라엘을 대신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기간은 열린문을 가진 교회 기간이며 이 시대는 모든 위대한 구령자들, 모든 위대한 복음전도자들, 모든 위대한 선교사들로 빛난 시대였습니다. 또한 이 교회는 킹제임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던 교회입니다. 그들은 자칭 유대인들인 로마 카톨릭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인내로 지킨 것으로 인해 앞으로 임할 대 환란으로부터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말씀을 끝까지 인내로 지키는 교회에게도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21 세기에 들어와서 대부분의 교회들은 라오디게아인들의 교회처럼 변질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칭 유대인들이라고하는 로마 카톨릭 교회와 연합하여 그들과 함께 종교통합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시대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나는 부자며, 부요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혈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들 교회들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말씀이신 예수님을 교회 밖으로 쫓아내어 주님께서는 이 시대 교회들을 향하여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계 3:20)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라오디케아 교회가 끝날 때에 다가오는 일에 대하여 증거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는데 내가 들은 첫 음성은 나팔 소리 같았으며,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리 올라오라. 내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들을 네게 보여주리라.’”(계 4:1)

이때에 요한은 성령 안에서 하늘로 휴거된 사실에 대하여 증거했습니다:

“또 내가 즉시 영 안에 있게 되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보좌가 놓여 있고 한 분이 그 보좌에 앉으셨는데 앉으신 분의 용모가 벽옥과 홍보석 같으며, 그 보좌를 두른 무지개는 에메랄드 같이 보이더라. 또 그 보좌 주위에는 스물네 좌석이

있는데, 내가 본 그 좌석들에는 흰옷을 입은 스물네 장로가 앉아 있고, 그들은 금으로 만든 면류관을 머리에 썼더라.”(계 4:2-4)

이때에 사도 요한은 대환란 때에 일어나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의 현장을 엄청난 두려움 가운데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가 끝날 때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신 약속을 받기 위해 끝까지 인내의 말씀을 지키며 믿음을 지키면서 그 날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날을 기다리는 우리에게도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사도 바울을 통해 증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에게 주신 면류관을 빼앗겨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무엇 보다도 필라델피아 교회가 인내로 지켰던 킹제임스 성경을 우리들에게 주셨으니 우리도 이 말씀을 끝까지 인내로 지켜야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신 열린 문을 우리에게도 끝까지 주셔서 주님께서 오시는 날까지 생명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파하게 하실 것이며 휴거의 문도 항상 열려 있게 하셔서 아무도 닫을 수 없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